

# 거진항 외국인선원 숙소 빗물 ‘줄줄’

## 건물 정면쪽 2층 3개동 · 3층 3개동 ... 도비 · 군비 3억원 들여 4월 완공

### 고성군 “보수공사 요구 ... 7월말까지 완료 계획”

고성군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 준공한 거진항 소재 외국인선원 숙소가 방한 천장으로 부터 벽을 타고 빗물이 새어 들어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인 선원숙소는 고성군이 도·군비를 합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 11월 착공해 올해 4월 완공했다. 연면적 234㎡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1층은 채낚기협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숙소 10개동과 화장실 및 샤워장 4개동으로 갖춰져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선원 50여명이 1개동에 5명씩 합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선원 고용은 어업인 고

령화 및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내국인 선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서 시작돼, 이제는 채낚기 어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마땅한 휴식장소와 숙소가 없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관리로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선원숙소를 건립해주고 있다.

지난 14일 외국인 선원 숙소 현장을 둘러본 결과 건물 정면쪽 2층 3개동과 3층 3개동에서 벽면을 타고 빗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으며, 이전에 새어 흘러내렸던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3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비가 샌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외국인 선원들은 요즘 같은 장마철에 방마다 빗물이 새어나오자 잠을 설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미 해당 시공업체에 보수 공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늦어도 7월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원광연 기자



지난 4월 준공한 거진항 외국인선원 숙소가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들어 부실공사 지적이 일고 있다.

# 2천원 행복 나눔 행사 ‘훈훈’

## 육군 22사단 간부 80명 성금 모음 ... 지역주민 · 불우전우 도와

육군 22사단 북진연대 간부들이 매달 2천원씩의 성금을 모아 지역주민 및 불우전우를 돕고 있다.

북진연대 참모부와 연대 직할 중대 간부 80여명은 ‘2천원 행복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은 성금으로 매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우이웃 2명에게 쌀 10kg을 지원하고 있다. 또 모범병사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우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천원 행복 나눔 행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연대 부사관들이 성금을 모금해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연대 참모부 및 직할 중대 간부들까지 동참하면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간에 종양이 발견(담관세포암)돼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해야하지만 비싼 병원비로 어려워하던 예하부대 부사관



육군 제 22보병사단 북진연대 간부들이 ‘2000원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은 성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에게도 성금을 전달해,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전우에게 큰 힘이 됐다.

북진연대는 앞으로도 ‘2천원 행복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외된 이웃과 전우를 찾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부대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북진연대 관계자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전우들과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느새 부대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

## 속초해경, 무면허·구명동의 미착용 등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이달말까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최근 바다에서 레저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레저활동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속초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난 17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18일부터 무면허 레저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 저해사범과 최근 사망 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된 카약 등 무동력 기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무면허로 요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구명동 등 안전장구 미착용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영동 북부지역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업체는 총 66개소이며, 속초해경은 지난해 동안 무등록사업소 등 20여건의 불법 레저활동을 적발했다.

원광연 기자

독자제보 ☎681-1666 / 구독신청 ☎681-1667  
편집국 이메일 goseongnews@hanmail.net